

하나님만 의지하고 싶습니다.

[짧은 말씀 묵상집 (14)]

제임스 김 목사 나눔

자기 공로, 자기 의, 마음의 완악함

무엇인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행한 것을 자기 공로로 여기면서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기를 좋아하게 되면
우리는 자기 의(self-righteousness)의 종독되어
마음이 완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막 3:5).

자기 의를 세우려는 열심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께 열심"을 내는 것은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롬 10:2-3).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는 부자보다 ...

자기 자신을 지혜롭게 여기는 부자보다
가난해도 자기를 살피 아는 명철한 자가 낫습니다(잠 28:11).

자녀 양육

자녀 양육,

삼손의 아버지인 마노아의 심정입니다:

'주님, 우리 자녀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삿 13:8, 12).

'자리'가 그 사람을 변화시키나요?

'자리'가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여

교회 안에서 직분자로 세우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일까요?

직분자가 아닌 상태에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작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

오히려 직분자가 되어서

점진적으로 변질되어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도

책망을 듣지 않고 변명하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을까요?

(사무엘상 15 장을 읽으면서 든 생각)

자식의 죽음을 슬퍼하는 부모의 마음

자식의 죽음을 슬퍼하는 부모의 마음은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입니다(삼하 18:33).

자신을 비워야 합니다.

자신을 비워야 합니다(빌 2:7).

미워하는 마음,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비워야 합니다.

마음에 욕심을 비워야 합니다, 특히 물질에 대한 욕심을 ...

교만한 마음을 비워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종이 되어 섬겨야 합니다.

겸손히 주님의 뜻에 복종해야 합니다(8 절).

자신을 스스로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지식으로 인해 교만해진 자는

자기 자신이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만은 우리 자신을 스스로 속이고 있습니다(self-deception)(고전 8:1-2).

자유를 자유스럽게 사용하지 않는 이유

내게 주어진 자유(권리)를 자유스럽게 사용하기보다
절제하고 범사에 참아야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해서 입니다(고전 9:12).

잘 보이고 계속 생각나는 상대방의 허물?

사단의 유혹은 우리로 하여금 서로의 허물을 너무나도 잘 보게 하고, 계속 생각하게 만들어
기록하게 만들고, 또한 그 허물을 자꾸만 다른 사람에게 말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잘못한 것들을 기록하지 않으며)
(Love keeps no record of wrongs)(고전 13:5)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운다(but love covers over all wrongs)(잠 10:12)고
말씀하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허물을 덮어 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입니다(잠 17:9).

잘 섬기고, 잘 대접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집(교회)을 아주 잘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쓰임 받아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베풀어준
하나님의 종과 그의 집을 후대(잘 대접)해야 합니다(삿 8:34, 35).

잠을 달게 자는 노동자가 ...

잠을 달게 자는 노동자가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는 부자보다 낫습니다

(전 5:12).

장인-사위 관계?

모세의 장인과 사위인 모세와의 관계(출 18:13-27)

1. 모세의 장인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
2. 모세의 장인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재판하느라 "홀로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의 곁에 서 있는 것이 "옳지 못하다"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할 것이고 또한 모세가 이 중한 일을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3. 모세의 장인은 모세에게 "방침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방침은 모세의 중한 일을 함께 담당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들을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면 모세에게 일이 쉬울 것이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4. 모세는 자신의 장인의 말을 다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했습니다.

이 4 가지 사실을 현재 우리의 장인-사위 관계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재물" 우상을 미워할 정도로 오직 "주님"만 사랑하는 단련의 기회인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마 6:24).

우리 목회자들부터 해서 사랑하고 중히 여기고 섬기고 있는
"재물"이란 우상을 미워하고 경히 여기는 계기인가?
그러므로 오직 주님만 사랑하고 중히 여기며 섬기는 단련과 훈련의 기회인가?

저주를 돌이켜 축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저주를 돌이켜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압 왕 발락은 발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세 번이나
저주케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저주를 돌이켜 오히려 이스라엘을 세 번이나 축복케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 행복자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 무리들은 예수를 저주의 나무인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크게 외쳤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은 예수가 신성 모독죄와 성전 모독죄로
마땅히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예수 십자가의 저주를 돌이켜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전도의 미련한 것" & "세상의 미련한 것들"

하나님께서서는 "전도의 미련한 것",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며 세상의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고전 1:21, 27).

전심으로 주님의 길을 걷어가는 ...

전심으로 주님의 길을 걷어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행하면서 마음과 삶의 모든 우상을 제거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이러한 자들과 함께 하십니다(대하 17:3-6).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하지 않는 자들은 ...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하지 않는 자들은
큰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므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지만
그 후에 작은 위기 가운데서는 사람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망령되이 행하는 것이라는
주님의 종의 책망에 크게 분노하여 그 주님의 종을 핍박합니다(대하 16:7-10).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해야 하는데 ...

하나님을 의지하였다가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하는 것이 아니요
오히려 하나님 보시기에
망령되이 행하는 것입니다
(대하 16:7-9).

점치는 것은 죄입니다.

점치는 것은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습니다.
우상에게 절하는 것은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고한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삼상 15:23).

“젓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께서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맹세)하신 가나안 땅을

“젓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셨고(렘 32:22),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던(민 14:24) 여호수아와 갈렙도

가나안 땅을 “젓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했습니다(8 절).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 “악평”한 10 명의 정탐꾼들도(13:32)

그 가나안 땅을 “젓과 꿀이 흐”른다고 말했습니다(27 절).

그런데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16:3, 11) “너무 분수에 지나”쳤던(7 절) 다단과 아비람(12 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 생활을 했던 애굽을(20:2, 신 5:6, 6:12, 24:22)

“젓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여겼습니다(민 16:13).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젓과 꿀이 흐르는 땅”은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인(계시록 21:1) 영원한 천국입니다.

주님을 온전히 따라는 우리는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 살면서

믿음으로 저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거슬러 너무 분수에 지나친 교인들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죄의 줄 노릇하던 애굽과 같은 이 최악 된 세상을

‘천국’으로 여기고

“위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땅의 것을 생각”하면 살고 있습니다(참고: 골 3:2).

제자도의 원리?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제자도의 원리는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삿 7:17).

조심하여 사랑해야

우리는 스스로 조심하여
우리의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그들의 신들을 가까이 하지 말고
오직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수 23:7-13).

존경 받는 사람

존경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삼상 9:6, 12:23).

죄를 다스려야

죄에 다스림을 받지 말고
죄를 다스려야 하는데 ...
(창 4:7)

죄를 덮고자 하려다가 아예 살인죄까지 ...

다윗은 유부녀 밧세바와 동침하여
그녀가 임신했음을 알게 되었을 때
그 사실을 덮으려고
전쟁에 나가있었던 그녀의 남편 충성된 군인 우리아를 불러다가
두 번이나 자기 집으로 내려가게 만들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실패하자
다윗은 우리아를 죽이려고
그의 손에 편지를 들려 요압 장군에게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그것도 요압과 공모에서 우리아를 죽이는 계획에 적혀 있는 편지를
그의 손에 들고 가게 말입니다.

제 생각에 이때에 다윗은
그저 밧세바와 동침하여 그녀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덮으려고만 한 것이 아니라
아예 그녀의 남편인 우리아를 죽게 만들므로
밧세바를 자기의 아내로 만들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삼하 11:4-27).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이신데 ...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도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고 3 번이나 말했음에도 불구하고(눅 23:14, 15, 22),

그 큰 무리는 "큰 소리로 재촉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했습니다(21 절).

예수님을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인데(고후 5:21),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도 예수님을 "심문"해 본 후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던 것인데 (눅 23:14, 15, 22)

그 무지한 큰 무리들은 예수님이

"신성모독" 죄(5:21)와 '성전모독' 죄(요 2:19)로

마땅히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죽어야 한다고 확신했기에(신 21:23; 갈 3:13)

큰 소리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두 번이나 소리를 질렀던 것입니다(눅 23:21).

"죄악의 걸림돌"

우리가 하나님 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을 우리 마음에 들이면

그것은 결국

죄악의 걸림돌을 우리 앞에

두는 것입니다

(겔 14:3).

죄와 죄 인식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죄는 덜 짓게 되지만
죄 인식은 더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5 장 1 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 베푸시는 은혜로 기억해주세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공의로 기억치 않으시고
베푸시는 은혜로 기억하시니
이 얼마나 감사한가(시 106:4).

주님 보시기에 "좋은 일"?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한 것이
주님 보시기에 "좋은 일"을 한 것이라면(막 14:6, 8),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전파하며,
부활 승천하시사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것이야 말로
주님 보시기에 좋은 일이 아닐까?

주님, 저를 용서해주세요.

‘주님, 주님께서 저를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용서해주신 것처럼
주님의 변함없으신 크신 사랑으로 저를 용서해주세요’(민 14:19, 현대인의 성경).

주님, 제 마음을 연단해주세요.

하나님, 고통의 용광로를 통해서라도(사 48:10) 제 마음을 연단해주셔서(잠 17:3)
이러한 마음을 주세요:
교만한 마음이 아닌 겸손한 마음, 거짓된 마음이 아닌 진실 된 마음,
미련한 마음이 아닌 지혜로운 마음, 더러운 마음이 아닌 정결한 마음,
탐욕스러운 마음이 아닌 자족하는 마음.

주님 중심된 삶을 산다는 것이란?

주님 중심된 삶을 산다는 것이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요일 4:8, 16)의 지배(control)를 받으면서,
진리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요 14:6)의 권위(authority)의 말씀인
예수님의 이중 계명(하나님 사랑 및 이웃 사랑)에 순종함으로(마 22:37, 39),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교제(fellowship)하는 것입니다(요일 1:3).

주님께서 나를 보내심은 ...

주님께서 나를 보내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도" 를 전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고전 1:17-18).

주님께서 나를 인자하심과 구원의 노래로 두르셨습니다.

첫째 아기 주영이의 뺨가루를 물가에 뿌리고
배를 몰고 육지로 돌아가고 있었을 때
배 앞부분에 타고 있던 사랑하는 아내가
갑자기 뒤에서 배를 몰고 있는 나에게 고개를 돌려 "Titanic"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때 저는 아내의 얼굴에 흐르는 눈물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마음에서 터져 입술로
굉장하고 놀라운 주님의 구원의 사랑을 찬양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편 32 편 말씀을 읽다가
7 절과 10 절 말씀이 그 때 그 순간을 다시금 뒤돌아보게 만드는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때 주님께서서는 나를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두르셨고, 나를 구원의 노래로 두르셨다.'

그러므로 주님의 영원하신 인자하심이 주영이의 55 일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로 하여금 주님의 구원의 사랑을 찬양케 하셨습니다(시 63:3).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께서 우리를 ...

끝까지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고전 1:8).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처녀인데 어떻게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수가 있습니까?

그것도 위대하시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요? (눅 1:31-32, 현대인의 성경)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천사가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여섯 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고 말하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말했습니다"(35-38 절).

그녀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었습니다(45 절).

어떻게 나 같은 자가 주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으며(마 16:18),

어떻게 나 같은 자가 오병이어의 역사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요 6:1-15)

오직 성령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태복음 16 장 18 절과 요한복음 6 장 1-15 절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습니다!(눅 1:37)

그러므로 나는 주님께서 나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믿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은 완전합니다.

모세의 두 번째 노래(신 32:1-43)를 보면 [첫 번째 노래 (출 15:1-18)]
모세는 “...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라고 하나님을 노래했습니다(신 32:4).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완전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든 생각은 모세가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라고 노래를 했을 때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처럼 “그가 하신 일은 완전하고”라고 노래를 했을까 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 보면 출애굽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불평하고 원망을 했기 때문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앞까지 인도하심에 있어서 불만족에서 불평과 원망을 많이 했습니다.
한 예로, 신명기 1 장 17 절을 보십시오: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시므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이렇게 까지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과연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행하신 일은 완전하다고 노래할 수가 있었을까요?
제 생각엔 완전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이는 “그가 하신 일은 완전”합니다 라고
노래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모세가 “그가 하신 일은 완전하고”라고 믿음으로 신앙 고백으로 노래를 했다는 것은
자기가 가데스 므리바 물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으므로
그가 그리도 간절히 들어가고 싶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민 20:12)
또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완전합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적 노래를 불렀다고 생각합니다(신 32:4).

잠언 19 장 21 절을 보면 “... 오직 여호와와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뜻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어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진노하사 그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그에게 "그만해도 족하니(It's enough)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3:23-26).

모세는 예수님께서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기도하셨던 것처럼(마 26:39, 현대인의 성경)

자기의 뜻보다 주님의 완전한 뜻(잠 19:21)이 이루어주길 원했습니다.

그는 자기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20 세 이상의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후세대들이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을 원했습니다(민 14:29).

그 이유는 모세는 하나님의 완전한 뜻만이 이루어지길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모세는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뜻을 행하시는

모든 일이 완전하시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합니다 라고

신앙 고백적인 노래를 하나님께 불렀다고 생각합니다(신 32:4).

우리 주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도 완전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완전하신 하나님의 완전한 뜻은 구원입니다.

그 구원의 뜻을 이루심에 있어서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요

완전하신 사람이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므로 우리가 완전하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반석이시요 완전하신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구원의 일을 이미 시작하셨으며(빌 1:6),

지금도 구원의 일을 행하고 계시며 (2:12), 그리스도 예수님의 날까지 구원의 일을 완성하실

것입니다(1:6, 현대인의 성경).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완전하십니다’라고

신앙 고백적 노래를 하나님께 부르는 것입니다(신 32:4).

주님은 나를 돕고 위로하십니다.

주님은 나를 돕고 위로하십니다.

주님은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응답해 주십니다.

주님은 나에게 힘을 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주님은 나에게 주님의 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 이유는 내게 향하신 주님의 인자하심이 크고 후하기 때문입니다

(시 86).

주님을 만날 기회 ...?

주님을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님께 기도를 해야 할 텐데

그 기회란 언제일까요?

어쩌면 그 기회란

내가 범한 죄를 하나님께 자복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으므로 말미암아

주님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므로

내 진액이 빠져 내가 종일 신음하고

내 뼈가 쇠할 정도로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일 수도 ...?

(시 32:3-6)

주님은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모세의 두 번째 노래(신 32:1-43)를 보면 [첫 번째 노래 (출 15:1-18)]

모세는 “그는 반석이시니 …”라고 하나님을 노래했습니다(신 32:4).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은 반석이시’라고 고백하면서 노래를 불렀을 때

그의 입장에서 “반석”하면 어떠한 생각이 떠올랐을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생각나는 말씀은 민수기 20 장 10 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가데스란 곳에서 이스라엘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다윗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가지고 네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8 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때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 앞에서 지팡이를 잡고

이스라엘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그들에게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라”라고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쳤습니다(9-11 절).

그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12 절).

결국 모세는 “므리바 물”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과 다윗을 때 (12 절)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으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그가 죽기 전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기 전에

노래를 지어 불렀을 때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켜 “그는 반석이시”라고 고백한 것입니다(신 32:4).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주님께서 제가 섬기고 있는 승리장로교회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인

마태복음 16 장 18 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께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우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생각난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0 장 4 절입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매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리고 또 생각난 말씀은 마태복음 7 장 24-27 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치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치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 말씀과 신명기 32 장 4 절의 말씀과 연관해서 묵상할 때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은 반석이시요 나는 모래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저 같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모래와 같은 사람에게 주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주님을 말과 혀로만 사랑?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저 하나님께 "주여, 주여"만 부르고

행함이 없는 것은, 주님을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지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눅 6:46; 요일 3:18).

주님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세요.

사랑의 주님,
주님을 아는 마음을 주님을 떠난 그들에게 주시사
그들로 하여금 전심으로 주님께 돌아오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렘 24:7).

주님을 향한 내 마음을 돌릴 사람이라면 ...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반드시" 내 마음을 돌려
그 사람의 우상을 따르게 할 것 같으면 나는 그 사람하고 결혼하지 말뿐만 아니라
그 사람으로 나와 결혼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참고: 왕상 11:1-5).

주님의 뜻대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

주님의 뜻대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 모든 큰일을 행하시되
주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주님의 종의 집을 세우시고 영원히 복을 받게 하시사
오직 주님 만에 하나님이시며 주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시옵소서
(삼하 7:21, 25, 27-29).

주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란?

솔로몬 왕은 주님의 마음에 드는 것을 하나님께 구했습니다(왕상 3:10).

그는 오직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스리게 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했습니다(대하 1:11).

그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그가 구한 지혜와 지식만 주신 게 아니라

그가 구하지 아니한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셨습니다(12 절; 왕상 3:13).

주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는

"먼저 그(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마 6:33).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우리)에게 더하"실 것입니다(33 절).

주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는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26:39).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

나는 주님을 존귀히 여기길 원합니다.

나에게 약속의 말씀인 요한복음 5 장 1-15 절과 마태복음 16 장 18 절을 주신

주님을 존귀히 여기길 기원합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어 나아가시는

주님을 존귀히 여기길 원합니다.

그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나는 주님을 존귀히 여길 것입니다

(참고: 삿 13:17).

주님의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주님은 우리 선한 목자이십니다(시 23:1; 요 10:11, 14).

선한 목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양들인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목숨을 버리시므로

우리가 풍성한 영생을 얻게 되었기에(요 10:10-11, 15, 17)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시 23:1).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평탄한 길로 인도하심과

주님의 공급하심과 소생케 하심이 범죄한 우리를 회개케 하여

진정한 생명을 받게 하심과 함께하심과 보호하심과 안위하심과

우리로 하여금 영적 싸움에 승리케 하시사

우리 원수 앞에서 높이심과 우리를 귀빈처럼 대우하심,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도우심으로 인해 우리의 잔이 넘칩니다(2-5 절, 박윤선).

우리의 평생에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선하심과 주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따를 것이기에 우리는 확실한 소망인 주님의 집에 영원히 살 것입니다(6 절).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1 절).

주님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

주님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우리의 죄악을 사하시되

모태에서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참고: 민 14:19).

주님의 전을 재건함에 있어서 ...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서는 바사 왕 고레스로 하여금 명령케 하여
"유다 사람이 어느 곳에 살든지 그가 돌아갈 때에
그 이웃 사람들은 그를 도와주고
그에게 은과 금과 그 밖에 필요한 물건과 짐승과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바칠 예물을 주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스 1:4,
현대인의 성경) 또한 고레스 자신으로 하여금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어(7 절)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게 하셨습니다(8 절).

그리고 "그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도착했을 때
일부 집안의 지도자들이 그 곳에 성전을 재건하려고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2:68, 현대인의 성경).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불신자들을 통해서도 주님의 전을 재건하는데 도움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백성들 중 "자진해서 기쁜 마음으로 바치는 예물"을 통해서도
주님이 전을 재건케 하십니다(3:5, 현대인의 성경).

주님의 종에게 지혜를 주시므로 ...

주님께서서는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시사
주님의 종에게 지혜를 주시므로 능히 주님의 교회를 세우(게 하)십니다
(참고: 대하 2:12; 마 16:18).

주님의 종은 ...

"주의 종"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참 "이스라엘"인 교회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이 나타나야 합니다(왕상 18:36).

주님의 종이라는 우리 목사님들은 ...

"여호와와 선지자"(왕상 22:7) 미가는

모든 거짓 선지자들이 아합 왕에게 "좋은 일만 예언"할 때에도(10-13 절, 현대인의 성경)

"내가 살아 계신 여호와와 이름으로 맹세하지만

나는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만 말"합니다

(14 절, 현대인의 성경; 참고: 예레미야 선지자).

미가 선지자는 아합 왕에게 "여호와와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말했지만

(16 절; 참고: 19-23 절)

아합 왕은 미가가 자기에게 "좋은 일은 예언하지 않고

언제나 나쁜 일만 예언한다고" 생각했습니다(18 절, 현대인의 성경).

주님의 종이라는 우리 목사님들은 거짓 목사들이 "다른 예수"를 전파하고, "다른 영"을 받게

하며 또한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다 할지라도(고후 11:4; 참고: 갈 1:7-9)

"여호와와 선지자" 미가처럼 "살아 계신 여호와와 이름으로 맹세하지만

나는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만 말"해야 합니다(왕상 22:14).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일입니다. 내가 이제 와서 사람을 기쁘게 하겠습니까?

내가 아직도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갈 1:10, 현대인의 성경).

주님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봅니다.

내가 주님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님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겠습니다(시 106:5).

죽음 후에도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리가 ...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을 위하여 살되(막 8:35)

그 복음을 입술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고전 1:17; 9:14)

그 복음의 합당한 삶으로도 전하다가(빌 1:27) 죽은 후에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리가 사랑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의 기억에 메아리치길 기원합니다(히 11:4).

중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미션

하나님의 미션은 중지할 수가 없습니다(느 6:3).

비록 사단과 우리의 대적자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미션을 하는 것을 멈추게 하고자 공격을 해오고 있지만 우리는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심장이 이 순간에도 뛰고 있기 때문입니다(빌 1:8).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심장을 뛰고 있게 하시기에 우리는 오늘도 미션 필드(Mission Field)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족, 친척으로, 우리의 학교로, 우리의 직장으로, 우리의 이웃으로 ...

중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미션,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그 미션을 이루셨고 지금도 이루고 계시며 앞으로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입니다(빌 1:6). 승리!

지금 나는 ...

지금 나는 ...

주님의 일을 염려하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일을 염려하고 있는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아내를 기쁘게 하고 있는가?

지금 내 마음은 갈라져 있는 것은 아닌가?

이치에 합당하게 하려

흐트러짐이 없이 주님을 섬겨야 할 텐데 ...

(고전 7:32-35)

지금 내 입으로 무슨 말들을 하고 있는 것일까?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말하기 마련입니다(눅 6:45).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생각해보면

지금 내 마음에 무엇이 가득히 쌓여 있는지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 "진실이 아닌 거짓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 "진실이 아닌 거짓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람들은 "활을 당기듯이 혀를 놀려 거짓말을 쏘아대"고 있습니다
(렘 9:3, 현대인의 성경).

지금 우리는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또 주님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3 절).

지금 우리는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주님을 알기를 싫어하고 있습니다(6 절).

그러므로 우리는 이웃을 조심하고 어떤 형제/자매든지 믿지 말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은 우리를 속이고 진실을 말하지 않으며

그들의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는 데 지칠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4-5 절).

지금보다 나중에 더 중요합니다.

사람을 경책하므로

지금은 미움을 받아도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는 것이

사람에게 아첨함으로

지금은 사랑을 받는 것 같아도

나중에 더욱 미움을 받는 것보다 낫습니다

(잠 28:23).

지금은 받을 때가 아닌데 ...

주인인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는
자금이 받을 때가 아닌 줄 알고
나병 치유 받은 나아만 장군에게
아무 것도 받지 않았는데
엘리사 선지자의 종인 게하시는
나아만 장군에게서 무엇이든지 받으려고 쫓아가서
실제로 받은 후 그 받은 것들을 집에 감추었습니다(왕하 5:19-26).

지금은 받을 때가 아니라 베풀 때인데 ...

지도자는 ...

지도자는 따르는 사람들의 무슨 말을 들어야 하는지 보다
무슨 말을 듣지 말아야 하는지를 더 잘(분별)해야 합니다(삼상 24:9).

"지식의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지식의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을 달아 보십니다(삼상 2:3).

지혜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

지혜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므로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시사
우리들의 마음을 겸손케 하신 것을 보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합니다(시 107:11-12, 43).

지혜 있는 자들은 ... (1)

지혜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판단합니다(고전 10:15).

지혜 있는 자들은 ... (2)

지혜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행하시는 일들을 지켜보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깨달습니다(시 107:43).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합니다(8, 15, 21, 31 절).

지혜가 부족하다.

지혜가 부족하다.

그 결과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날 때에 온전히 기쁘게 여기지 못하고 있다(약 1:2).

온전히 기쁘게 여기지 못하므로 인내를 온전히 이루지 못하고 있다(3 절).

오히려 조급해졌다(딤후 3:4).

지혜가 없는 우리 목사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목사들에게는 지혜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우리 목사들은

욕심을 내고 있으며 거짓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평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평강하다, 평강하다"라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일을 행하고 있으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고 있습니다(렘 8:9-12).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

모락이 없고 분별력이 없는 우리들,

만일 우리가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을 텐데 ...

(신 32:28-29)

지혜로운 자

미련한 자는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합니다(잠 18:2).

미련한 자는 사연들 듣기 전에 대답합니다(13 절).

미련한 자는 다툼을 일으킵니다(6 절).

미련한 자는 남의 말하기를 좋아합니다(7 절).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깊은 물 같은 다른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plan)일지라도 그것을 길어 냅니다(20:5).

지혜롭게 행하는 자의 이름은 심히 귀하게 됩니다.

보내진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되 "크게 지혜롭게 행"하며,
"모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는
다윗과 같은 사람의 "이름은 심히 귀하게" 됩니다
(삼상 18:5, 14-15, 30).

지혜롭게 행할 때 두 다른 반응?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므로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했을 때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지만
사울 왕은 다윗을 두려워했습니다(삼상 18:14-16).

지혜와 지식이 있는 그리스도인들?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라는 말을 듣고 있습니까? (신 4:6)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지켜 행하는 것이

우리의 지혜요 우리의 지식입니다(6 절).

진실이 없어졌습니다.

진실이 없어져 우리 입에서 끊어진 이유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으며

교훈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렘 7:28).

진실한 성도는 이길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기셨고 이길 것이기에

주님께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성도들도 이길 것입니다(계 17:14).

진실히 섬겨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구원의 일을 생각하여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겨야 합니다(삼상 12:24).

진정으로 새 사람이라면 ..

“하나님께서로부터 난 자”들(요일 5:1),
즉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 자들, 다시 태어난 자들, 새롭게 태어난 자들(new birth)은
계속해서/지속적으로 믿음으로 살아갑니다(ongoing faith).
그들에게는 새 사람답게 살아가는 증거(evidence)가 있습니다(맥아더).

그 증거는 2 가지입니다:

- (1) “낳으신 이”(1 절)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 (2) 하나님에게서 거듭난 자인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2 가지는 예수님의 이중계명인

- (1)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와
- (2)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와 같은 의미입니다(마 22:37, 39).

즉, “하나님께서로부터 난 자”들(요일 5:1),
하나님께서로부터 새롭게 태어난 거듭난/중생한 그리스도인들의 새 사람 답게 살아가는 증거는
예수님의 이중 계명 또는 (1) 하나님을 사랑하며 (2) 형제, 자매(이웃)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자신의 범죄를 안다면 ...

어떻게 자신이 하나님께 죄를 범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사람들 앞에서 높임 받기를 원할 수 있을까요?
진정으로 자신의 범죄를 안다면
하나님 앞에서 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히 낮아져야 하지 않나요?
(삼상 15:30)

질투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해야 합니다(민 25:13).

짐승 같은 그리스도인

짐승 같은 그리스도인(시 49:12, 20)은 어리석은 자입니다(13 절).
그리고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53:1).
다 시 말하면, 어리석은 그리스도인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않고 오히려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합니다(52:7).
즉, 짐승 같은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입니다(49:6).

“짜증나!” ...

성경은 우리에게 성내기를 더디 하라고 명하고 있습니다(약 1:19).

그러나 우리는 짜증을 내면서 그것이 성내는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책망을 은혜로 여기는 겸손함과 지혜로움

다윗은 난관 속에서도 의인의 책망을 거저할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책망을 은혜로 여겼습니다(시 141:5).

어떻게 가능합니까?

사람의 본능은 난관을 만나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위로 받기를 원할 진데 ...

다윗에게는 겸손함과 지혜가 있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겸손이라 함은 난관과 고통, 역경을 통해서

다윗의 눈이 주님께 향하여 고정되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스스로 낮추는 것을 말합니다.

다윗의 지혜를 생각할 때 잠언 9 장 8 절이 생각납니다: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책망하는 목사님에게 화를 내는 교인?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범죄하는 자를 책망하는 목사님에게

화를 내는 교만한 그 사람은 주님께서 치실 것이다?(참고: 대하 26:16-20)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또한 여러분과 함께 하시므로 여러분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길 기원합니다(신 2:7).

충실한 목사님

주님 보시기에 충실한 목사님은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대로 행합니다(삼상 2:35).

충실한 목사님?

아무 죽을 일을 하지도 않았는데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기로 결심한 줄을 안 다윗(삼상 20:31-33)이 "홀로 있고 함께 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을 때" 제사장 아히멜렉은 "떨며 다윗을 영접하"였습니다(21:1). 그리고 제사장 아히멜렉은 다윗을 위하여 하나님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칼도 주는 바람에(22:10) 사울 왕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11 절). 그 때 사울 왕은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네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다윗)과 공모하여 나(사울 왕)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라고 말했습니다(13 절). 분명히 제사장 아히멜렉은 다윗과 공모한 것도 아니요 하나님께 물어서 다윗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사울 왕을 치게 하려고 했던 것도 결코 아니었는데 말입니다. 그 때 제사장 아히멜렉은 사울 왕에게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 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이까"(14 절). 그 결과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온 집[아들 아비아달만 빼고(20 절)]이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16, 18 절). "충실한 자" 다윗(14 절)에게는 이렇게 충실한 하나님의 종 "제사장 아히멜렉"이 있었습니다.

취약점: 악한 자와 교제하는 것?

유다 왕 여호사밧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을 때(대하 18:1)

악한 자(19:2)였던 이스라엘 왕 아합과 인척 관계를 맺었었는데(18:1),

나중에도 심히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교제했습니다(20:35).

이 사실을 볼 때에

제 생각엔 여호사밧은

선견자 예후의 책망을 귀담아 듣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이까"(19:2).

그의 취약점은

악한 자와 관계를 맺고 교제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치워 버리고 또 버리게 하소서

우리가 주님을 택하고

주님을 섬기고 있다면

우리 중에 있는 죄악들을 치워 버리고 또 버리면서

우리 마음을 주님께 향하고 있을겁니다

(수 24:22-23).

친구 위로 사역?

1. 사랑하는 친구가 당하고 있는 모든 일을 듣습니다.
2. 서로 연락하여 함께 그 고통당하고 있는 친구를 위로하고자 찾아갑니다.
3. 알아 볼 수 없을 만큼 극심한 고통으로 인해 그 친구의 변한 모습을 보고 함께 슬피
웁니다.
4. 오랫동안 그 고통당하는 친구와 함께 있습니다.
5. 그 친구의 고통이 너무 큰 것을 보았기 때문에 말 한 마디 하지 않습니다.
(욘 2:11-13, 현대인의 성경)

친구의 아픈 책망이 낫습니다.

친구의 숨은 사랑보다

충직으로 말미암은 친구의 아픈 책망이 낫습니다.

그리고 친구의 충성된 권고는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하며 아름답습니다

(잠 27:5, 6, 9).

"칭찬 받을 것이 무엇이나"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며,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며,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꺾 주는 게
내 본능인데,
주님은 그것은 "칭찬 받을 것이 무엇이나" ...
'죄인들도 그렇게 한다'고 말씀하고 계신다.

주님의 계명은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 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는 말씀이다
(눅 6:31-35).

"큰 용사"

하나님께서 "큰 용사"라고 말씀하신
기드온(삿 6:12)을 사용하시사
이스라엘을 미디안에서 건져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사용하시사
"큰 용사"인 나아만 장관을(왕하 5:1)
그의 나병에서 건져주셨습니다.

큰 위기 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고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는 그리스도인 지도자는
큰 위기 가운데서도 힘을 내어 자기를 쫓는 자들을 견고하게 하고 위로하며 안심하게 합니다.
그가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으면서 그렇게 할수 있는 이유는
그는 큰 위기보다 자기와 자기를 쫓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큰 위기보다 더 크신 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크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 싸우시사 승리케 하실 줄을 믿기 때문입니다
(대하 31:20-32:8).

큰 위기 속에서의 큰 구원

하나님께서서는 요나에게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욘 1:2)고
명하셨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불순종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는 요나가 탄 배에 "큰 바람"을 내리시므로 "큰 폭풍"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욘 1:4). 그 배가 거의 깨지게 된 큰 위기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위하여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습니다(17 절).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1 절)에 불순종하였지만(3 절)
그 큰 물고기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요나를 육지에 토했습니다(2:10).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보다 못한 불순종하는 요나에게 큰 위기를 허락해 주셨지만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큰 위기에서 요나를 건져주시고자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는 우리에게 큰 역경과 어려움을 주시지만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구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큰 위기를 감당할 능력이 없을 때 ...

우리가 당면한 이 큰 위기를 우리가 감당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해야 할 줄도 모를 때 우리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대하 20:12)
주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9 절).
그 이유는 주님의 손에는
권세와 구원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6, 9 절).

큰 폐단과 큰 불행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보는 "큰 폐단"은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요,
"큰 불행"은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하므로 다 없어져서
자녀에게 물려줄 유산도 없는 것입니다(전 5:13-16).

"탄식"

주님의 "탄식"이
나의 탄식이어야 하는데 ...
(막 3:5)

탐심 vs. 만족

탐심은 세상적인 헛된 것들을 아름답게 보게 만들고
그것들을 소유하게 만듭니다(수 7:21).

만족은 의미 있는 영적인 것을 아름답게 보게 만들고
그것을 감사히 여기에 만듭니다.

탐심 속에서 한 사람이 불순종하므로 ...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 성을 주실 때에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고 명하셨는데(수 6:18)
아간이란 한 사람이 탐심 속에서(7:21)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했습니다(1 절).

성경은 아간 한 사람의 불순종이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범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이 "우리를 괴롭게 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25 절).

성경 로마서 5 장 18-19 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그러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택함과 섬기는 이유

하나님이 우리는 먼저 택하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먼저 섬기셨기에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수 24:22; 엡 1:4; 마 20:28).

평탄한 길을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경비하여
우리와 우리 자녀 후손들과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에스라 8:21).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십니다(22 절).
우리는 하나님의 응낙하심을 입을 것입니다(23 절).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갈 것인데 ...

인생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갈 것인데
나 자신의 높음이나 낮아짐을 자랑해 보았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약 1:9-11).

피곤한 인생입니다.

족함이 없는 인생은 피곤한 인생입니다(참고: 전 1:8).

하나님 보시기에 어느 것이 더 나을까요?

높은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 특별한 대우를 받는 것 보다
낮은 사람들과 함께 낮아져서 겸손히 섬기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훨씬 낫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에 6:1-11; 9:4; 10:3)
교만한 자를 낮추실 것이기 때문입니다(삼하 22:28; 욥 40:11-12; 시 18:27; 잠 29:23).
(에스더 책에 나오는 하만과 모르드개를 생각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

하나님 보시기에 쓸모없는 사람은
빼돌려진 입으로 거짓말과 속이는 말을 하는 자입니다(잠 6:12).
하나님 보시기에 쓸모없는 사람은 빼돌려진 마음으로 항상 악을 꾀하는 자입니다(14 절).
하나님 보시기에 쓸모없는 사람은 다툼을 일으켜(14 절) 인간관계를 빼돌려 놓는 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쓸모 있는 사람은 바른 입으로 바른 말을 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쓸모 있는 사람은 바른 마음으로 항상 선을 도모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쓸모 있는 사람은 화목케 하여 인간관계를 바르게 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마음으로 싫어하셨을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 깨달아 알아 가면 알아 갈수록(요일 3:1)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요 14:21).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상(reward)을 주십니다:

"열매", "안전", "평화", 승리, "번성"/"창대", 등등(레 26:4-10).

그 상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11 절).

그러나 만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불순종할 때에는(14-15 절)

"재앙" 등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일곱 배나 더 징벌"(18, 28 절),

"일곱 배나 더 재앙"(21 절), "칠 배나 더 치"실 것이며(24 절),

우리의 수고가 헛될 것이며(20 절), 열매를 맺지 아니할 것이며(20 절), 등등,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30 절).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요일 3:1).

그러한 가운데 든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을 때(요 3:16),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크게 소리 지르셨을 때(마 27:46),

과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이신 예수님을(3:17) 싫어하셨을까?

과연 하나님 아버지는 십자가 상에서

독생자 예수님을 마음으로 싫어하시사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싫어하실 정도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반역의 죄를” 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싫어하던 땅”으로 여겼습니다(민 14:31, 33).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에서 40 년 동안
그들의 죄의 대가를 받으므로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34 절).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자
십자가에 화목 제물로 죽으시는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는 싫어하실 정도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요 3:16; 갈 1:4; 요일 4:10)

하나님 앞에 심히 큰 죄입니다.

행실이 습관적으로 나쁜 사람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심히 큰 죄입니다
(삼상 2:12-17).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무를 감당해야 하는데 ...

하나님은 다윗을

사울 왕의 손에 넘기지 않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십 사람들은 다윗을

사울 왕의 손에 넘기는 것이 자기들의 의무라고

사울 왕에게 말했습니다.

그 때 사울 왕은 십 사람들에게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고 말했습니다

(삼상 23:14, 20-21).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사람을 두려워하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의무를 감당하지 않고

그 사람의 뜻을 행하는 것을 자기 의무로 여기므로

그 사람에게 축복의 말을 듣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녀를 키워야 하는 것인가요?

저는 세 아이의 아버지로서 성경 사사기 13-16 장에 나오는 사사 삼손의 이야기를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의 입장에서 (또는 부모의 입장에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1. 마노아의 아내는 "본래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했습니다(삿 13:3).
2. 그런데 "여호와와 사자"가 자기 아내에게 나타나서 "...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고 말했습니다(3-5 절).
3. "이에 그 여인은 가서 그의 남편" 마노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우므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6-7 절).
4. 그 말을 자기 아내로 부터 들은 마노아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8 절).
5. 그런데 마노아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자를 이번에도 마노아에게 나타나게 하지 않으시고 마노아의 아내가 밭에 앉았을 때에 그녀에게 나타나게 하셨습니다(9 절).
6. 마노아의 아내는 급히 달려가서 자기의 남편 마노아에게 알리므로 마노아는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하나님의 사자에게 이르렀습니다(11 절).
7. 마노아는 하나님의 사자가 일전에 자기 아내에게 말씀하셨던 그 사람인지 확인한 후(11 절)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12 절).

저는 이 말씀을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의 입장에서 묵상할 때
그가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한 내용이 마음이 다가왔습니다:

(1) "우리가 그 날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8 절)(마노아가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 (2)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12 절)
(마노아가 하나님의 사자에게 한 말).

이 마노아의 말을 생각할 때 저는 삼손의 아버지 입장에서 장차 태어날
삼손에게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알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자에게 물은 것이 흥미로웠습니다.

특히 마노아의 입장에서 장차 내어날 아들 삼손은 하나님의 사자의 말대로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기에(5, 7 절)

아버지로서 나실인 삼손을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지
당연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자에게 여쭙볼 수밖에 없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마노나와 그의 아내는 부모로서

아들 삼손이 왜 "딤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부모에게 그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여자를 자기 아내로 맞으려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되었을 것입니다.

유대인 여자도 있는데 왜 자기 아들 삼손이 이방 민족인 블레셋 여자하고 결혼하려고 하는지
부모로서 이해가 안 되었을 것입니다(14:1-3).

한 마디로, 삼손의 부모는 "이것이 여호와께서 계획하신 일인 줄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삼손을 통해 블레셋 사람을 칠 기회를 찾고 계셨"던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4 절, 현대인의 성경).

또한 그 이유는 삼손은 자기 부모인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알리지 아니"했습니다.

무엇을 삼손은 자기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했냐면 ...

1. 삼손은 그의 부모와 함께 딤나에 내려가던 중 딤나의 포도원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자기에게 힘을 주시므로 맨손으로 젊은 사자 한 마리를 찢어 버린 것을 그의
부모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5-6 절).
2. 삼손은 "얼마 후" 딤나의 그 이방 여자와 결혼하려고 다시 딤나로 내려가다가 길을
벗어나 자기가 찢어 버린 그 사자의 사체가 있는 곳으로 가서 그 죽은 사자의 몸에 있는
약간의 꿀을 자기 손으로 떠서 걸어가면서 먹고 또한 그의 부모에게도 가지고 가서

드리면서도 그는 그 꿀을 죽은 사자의 몸에서 가져온 것이라고 자기 부모에게 알리지(말하지) 않았습니다(7-9 절, 현대인의 성경).

3. 삼손은 덤나에서 7 일 동안 잔치를 베풀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보낸 청년 30 명에게 수수께끼를 냈습니다. 그런데 그 30 명 청년들이 삼손의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자 7 일째 되는 날에 삼손의 아내에게 삼손을 꺾어 그 수수께끼를 자기들에게 알려달라고 위협을 했습니다. 삼손의 아내는 삼손 앞에서 울면서 "당신은 나를 미워하고 사랑하지 않는가 봐요. 당신이 내 백성에게 수수께끼를 내고도 나에게는 그 답을 말해 주지 않았잖아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삼손은 그녀에게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 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요"라고 말했습니다(10-16 절).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이렇게 세 번이나 부모에게 알리지도(말하지도) 않는 삼손을 아버지 마노아와 어머니(부모)가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지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쭙볼 수밖에 없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그 후에 삼손의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삼손의 친구에게 주므로 말미암아(15:6) "삼손이 가서 여우 삼백 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매고 화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화를 달고 화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 들어서 곡식 단과 아직 베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릅니다(4-5 절). 그리고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수없이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 바위 동굴에 머물러 있었는데(8 절)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에 진을 치고 레히 일대를 점유했습니다(9 절, 현대인의 성경).

그 때 유대 사람 3000 명이 바위 동굴로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렇게 꾸짖었습니다:

"우리가 블레셋 사람의 지배를 받는 줄 네가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어째서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11 절, 현대인의 성경).

과연 삼손이 유대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의 지배를 받고 있늘 줄 알지 못했을까요?

자기 부모에게 세 번이나 알리지 않았던 삼손은 유대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의 지배를 받고 있는 줄 당연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알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리 행한 것입니다.

다만 유대 사람들의 삼손의 부모처럼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14:4).

결국 그 때에도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므로

삼손은 "그의 팔위의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 후 나귀의 새 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 명을 죽였습니다(15:14-15).

그 후에 삼손은 "가사에 가서 "그 곳의 어떤 창녀를 보고

그녀의 침실로 들어갔"습니다(16:1, 현대인의 성경).

아니, 삼손은 이미 덩나에서도 블레셋 여자를 보고

자기 부모에게 그 처녀와 결혼하고 싶다고 말하지 않았나요? (14:1-2, 현대인의 성경)

그 후에 삼손은 들릴라라는 여자를 사랑합니다(4 절).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인 삼손(13:7)인데

이렇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대로 "세상으로 쫓아 온 것"(요일 2:16)을 추구하는 아들을

아버지인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부모로써 하나님께 "우리가 ... (아들 삼손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소서"라고 간구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요? (삿 13:8, 현대인의 성경)

흥미로운 점은 들릴라가 삼손에게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16:6),

"...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10 절),

"...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13 절)고

이렇게 세 번이나 "내게 말하라"고 것입니다.

이 사실이 제게 흥미로운 이유는

삼손은 전에 자기 부모에게 세 번이나 말하지 않았는데(14:6, 9, 16, 현대인의 성경)

자기가 사랑하는 이방 여인 들릴라에게도(16:4) 세 번이나 말을 하지 않았다가(6, 10, 13, 15 절)

결국에 가서는 그녀에게 자기의 "진심을 드러내어"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17 절, 현대인의 성경).

그 결과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힌바 되어

두 눈이 뽑힌바 되어서 가사로 끌려가서 낮 사슬로 묶인바 되어

감옥에서 돌을 돌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21 절).

그러다가 삼손은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는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23 절)을

위하여 "재주를 부리"다가(25, 27 절)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서(28 절)

"그 신전을 버티고 있는 중앙의 두 기둥에 양손을 하나씩 갖다 대고 떠밀며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게 하소서!' 하고 외치며 있는 힘을 다해

그 기동을 밀어 제"치므로 "그 신전이 블레셋 통치자들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위에 무너져 내렸다. 이와 같이 삼손은 살아 있을 때보다도 그가 죽을 때 더 많은 사람을 죽"인 후(29-30 절, 현대인의 성경)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묘지에 장사"됩니다(31 절, 현대인의 성경).

이 삼손의 이야기를 묵상할 때

저는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의 기도를 또 다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을 다시 보내 주셔서 태어날 아이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소서"(13:8, 현대인의 성경).

그리고 저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로 주신

사랑하는 세 자녀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가 여호와와 사자에게 여쭙 말처럼

저 또한 수시로 하나님께 여쭙 수밖에 없습니다:

"...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12 절).

하나님과 구원

하나님은 구원자이시며(골 1:13-14)

하나님의 뜻은 구원입니다(골 1:9; 요 6:40; 마 18:14).

하나님께서 우리가 밋길 원하시는 선한 열매는

영혼 구원입니다(골 1:10; 고전 16:15).

하나님과 돈을 함께 섬기는 어머니에게 ...

하나님과 돈을 함께 섬기는 어머니에게 잘못된 복관(福觀)을 배운 자녀는

돈으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복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참고: 삿 17:1-13, 특히 2, 13 절; 마 6:24).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 즉 나의 원죄, 나의 과거의 죄, 나의 현재의 죄, 그리고 나의 미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는 내 모든 죄를 사함 받았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롬 4:25).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에게 주신 이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이고, "불가능한 것을 바라고 믿"는 믿음입니다(4:18, 현대인의 성경).

어떻게 모든 나의 죄(all my sin)가 예수님께 전가되어서(imputed)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시므로 내 모든 죄가 사함(forgiveness of all my sin)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의(the righteousness of God)가 나에게 전가되어서(imputed)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 같은 죄를 짓는 자를 의롭다 칭하실 수가 있습니까? (justification)

인간의 명철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잠 3:5)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의심"할 수 밖에 없지만(롬 4:20, 현대인의 성경)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 "불가능한 것을 바라고 믿"는 믿음으로는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확신할 수밖에 없습니다(21 절). 나는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20 절).

그러므로 나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습니다(5:1).

나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를 누리고 있습니다(요일 1:3, 현대인의 성경). 그 교제에는 "기쁨이 충만"하며(4 절)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롬 5:1)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It is well It is well with my soul)라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습니다(새 찬송가 413 장, "내 평생에 가는 길" 후렴).

하나님께 기쁘시게 받는 사람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는 사람은 즐거운 마음으로 먹고 마시는 자입니다(전 9:7; 참고: 2:24).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는 사람은 정결한 삶과 기쁨의 삶을 삽니다(9:8).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는 사람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삽니다(9 절; 참고: 18:22, 5:19).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는 사람은 신적 소명을 가지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힘을 다하여 삽니다(9:9).

하나님께 속한 영적 전쟁이기에 ...

우리에게 속한 영적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기에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아야 합니다(대하 20:15).

우리는 이 전쟁에서 싸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17 절).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17 절).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여 견고히 서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을 신뢰하여 형통해야 합니다(20 절).

우리는 임마누엘 믿음으로 행진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21 절).

이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하나님께서서는 우리로 하여금 영적 전쟁에서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22-23 절).

하나님께 쉬운 일을 구하기보다 ...

하나님께 쉬운 일을 구하기보다 어려운 일, 불가능하게 여겨지는 일을 구하자(왕하 20:10).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임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녀 양육함에 있어서 왜 이런 저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우리의 이성으로는, 심지어 우리가 아는 성경적 지식으로도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모로서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합니다(삿 14:4).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을 ...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을 한 나라의 지도자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영원히 그 나라를 사랑하시므로

그 지도자를 세워 대통령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시길 기원합니다.

(열왕기상 10 장 9 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솔로몬 왕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우리가 명철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분이심을 깨닫는 것입니다(렘 9:24).

하나님께서 "반드시" ...

우리가 "여호와와의 싸움을 싸우"고 우리의 "일생에"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으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위하여 "튼튼한 집을 세우"실 것입니다(삼상 25:28)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셨기에 ...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셨기에 이스라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목매어 달라고 모세에게 명하셨을까요? (민수기 25:4)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셨기에
염병으로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24,000 명이나 되었을까요? (9 절)
그 하나님의 진노가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7 절)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질투하여(11 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 문에서 울 때에(6 절)
시므온인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인 살루의 아들인 시므리가(14 절)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인 수르의 딸인 고스비(15 절)를 데리고 온 것을 보고
회중 가운데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7 절) 시므리의 막사에 따라 들어가
그 시므리와 고스비의 배를 꿰뚫어서 죽였을 때 염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쳤습니다(8 절).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크기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의 저주의 나무인 십자가에 달리시게 하셨을까요?
우리의 죄가 얼마나 많기에
하나님께서 모든 진노를 십자가에 못 박히신 독생자 예수님께 다 쏟으셨을까요?
그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한 군인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러(요 19:34) 죽이므로 그쳤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구원(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렸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 할 것입니다

(사 25:9).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더 하실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극상 포도나무"입니다(사 4:2).

하나님께서서는 우리가 "좋은 포도" 맺기를 바라십니다(2 절).

그런데 우리는 "들포도"를 맺고 있습니다(2, 4 절).

우리는 악취 나는 죄악 된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었으랴?"(4 절).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미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하실 수 있었을까요?

이미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더 하실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신 것은 ...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신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고전 2:12).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왜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왜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 것일까요?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닐까요?
(삿 6:12-13)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도
우리는 심한 궁핍함 속에서
충분히 위의 세 질문을 던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악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알기 위해선 ...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알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 하시고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독생자 예수님을 봐야 합니다(참고: 민 14:34).

하나님께서 택한 길을 ...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택한 길을 가르쳐주십니다(시 25:12).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므로 ...

요셉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므로 형통하였고(창 39:2, 3, 23),
다윗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므로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했습니다(삼상 18:14).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형통케 하십니다(느헤미야 2 장 20 절).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므로 형통케 하여 주시길 기도하였습니다(느 1:11).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어주시사

아닥사스다 왕에게 은혜를 입게 하셨습니다(5 절).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로 하여금 유다로 가서 예루살렘 성읍을 중건하게 하였습니다(5 절).

그는 조소도 두 개나 써서 느헤미야에게 주었습니다(7-8 절).

하나님의 선한 손이 느헤미야를 도우셨습니다(8, 18 절).

비록 대적자들이 성전 중건을 방해하였지만(10, 19 절)

하나님의 선한 손이 느헤미야를 도우시므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로 하여금 형통케 하셨습니다(20 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그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실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 시기에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서는 그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행하십니다.

반드시 실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란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를 사탄의 왕국에서 인도하여 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에게 큰 구원의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민 23:19-23).

하나님께서서는 선한 자와 함께 하십니다.

"악한 자"를 돕다가(대하 19:2)

죽을 뻔했던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의 건지심을 받은 후(18:31-32)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19:11).

하나님께서서는 한 아이는 치셨지만 또 다른 아이는 사랑하셨습니다.

다윗 왕은 "여호와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 거리를 얻게" 한 결과로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치셨습니다

(삼하 12:14-15).

다윗 왕은 "그 아이가 죽은" 후(19 절)

"여호와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했습니다(20 절).

다윗 왕은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녀와 동침하므로 그녀가 아들 솔로몬을 낳았는데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셨습니다(24 절).

하나님께서서 첫째 아이는 치셨지만 둘째 아이는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 자의 삶의 증거는?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 자(born of God), 중생한 자, 새롭게 태어난 자,
새 피조물이 된 자의 삶의 증거(evidence)는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신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입니다(요한일서 5:1).
이 사도 요한의 요한일서 5 장 1 절 말씀은
예수님의 마태복음 22 장 37,39 절의 이중계명 말씀과 유사합니다.
한 마디로,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태어난 자는
예수님의 이중계명(Jesus' twofold commandment)을 순종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요일 4:8, 16).
사랑의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서로 사랑합니다(3:23).
그러나 서로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4:8).
그 이유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8, 16 절).

하나님은 우리의 심중에 있는 것을 알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실 때에는
우리의 심중에 있는 것을 알고자 우리를 시험하실 수 있습니다(대하 32:27-31).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해 승리를 준비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한 12 명의 정탐꾼들 중 여호수아와 갈렙을 뺀 10 명은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 습니다(민 13:28).

그리고는 그들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31 절),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32-33 절).

그런데 가나안 땅 거주민인 라합이

여호수아가 보낸 두 명의 정탐꾼들에게 한 말을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수 2:9-11).

이미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이란 말만 들어도 무서워 떨” 게 만들어 놓으셨는데(9 절, 현대인의 성경; 참고: 11 절)

이스라엘 백성들은 10 명 정탐꾼들의 “악평”을 듣고(민 13:32)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통곡하면서(14:1)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2 절).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11 절).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삶 속에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God is good, All the time)라고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롬 8:28)을 믿으므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미 맛보아 알기 때문입니다(시 34:8).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자기의 힘으로 자기 자신을 구원했다고
스스로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삿 7:2).

하나님을 믿고 회개할까요?

한국 선교사님이 일본에 가서 다니면서
'40 일이 지나면 일본은 망합니다'라고 외치면
악독이 가득한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회개를 할까요?
(요나 3 장 4-5 절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목사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하는
행실과 행하는 습관이 나쁜
죄가 하나님 앞에 심히 큰 목사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삼상 2:12-17).

하나님을 잠잠히 신뢰해야 하는데 ...

우리는 우리의 신뢰의 대상을 저울질하고 있다.
하나님을 신뢰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나 무엇인가를 신뢰할지 ...
이렇게 저울질을 하는 원인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사 30:9).
그 결과 우리는 마음에 평안함이 없으며 마음에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하나님을 잠잠히 신뢰해야 하는데 ... (15 절)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십니다.

요나단은 사랑하는 다윗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이다'
(삼상 23:16-17).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습니다(고전 4:20).

여기서 "말"이란 "교만한 자들의 말"을 가리킵니다(19 절).

좀 달리 말한다면, "말"이란 "교만한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가리킵니다(6 절).

좀 더 달리 말한다면, "말"이란 교만한 자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지혜의 말"을 가리킵니다(2:4, 5).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말에 있지 않습니다(4:20).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4:20).

여기서 "능력"이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2:5).

이 하나님의 능력은 "십자가의 도"의 능력입니다(1:18)(복음의 능력)(롬 1:16).

이 하나님의 능력은 "그리스도"이십니다(고전 1:24).

이 하나님의 능력에는 "성령님의 나타나심"이 있습니다(2:4).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롬 12:2) 사랑하사 창세전에 택한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엡 1:4).

그 구원의 뜻을 이루심에 있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구원의 뜻을 이루십니다

(롬 8:28). 그 원대한 구원의 뜻을 이루심에 있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사용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나 죽으나(롬 14:8)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일에 겸손히 순종해야 합니다(빌 2:8).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할 뿐만

아니라(빌 1:27) 우리의 입을 열어 그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행 8:35).

오직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마 6:10).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성령님께서
나로 하여금 예수님처럼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간구하게 하옵소서
(롬 8:27; 마 26:39; 막 14:36; 눅 22:42).

하나님의 뜻은 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사 46:10).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며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아 마음을 새롭게 하지 못하고
변화를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롬 12:2).

하나님의 말씀은 이성으로 이해해서 순종하기보다 ...

여리고 성에서 승리한 후(수 6 장)

아이 성과의 첫 번째 전쟁에서 아이 성을 정탐한 사람들은 여호수아에게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이삼천 명(2-3,000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라고 말했습니다(7:3).

“그래서 3,000 명 정도의 병력만 보냈”는데”

“그들은 보기 좋게 패하여 아이군 앞에서 도망”했습니다(4 절, 현대인의 성경).

그런데 아이 성과의 두 번째 전쟁에서는

“용사 삼만 명”(정예병 30,000 명)이나 뽑아서 밤에 아이 성으로 보냈습니다(8:3).

첫 번째 전쟁했을 때는 3,000 명을 보냈었는데 두 번째 전쟁 때에는 10 배나 더 많은, 그것도 정예부대 군인들을 30,000 명이나 보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아이 성을 “진멸”했을 때(24 절)

“그 날에 엎드려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만 이천 명” 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25 절).

다시 말하면, 아이 성에는 남자와 여자 모두 12,000 명밖에 되지 않았는데

왜 여호수아는 정예병을 30,000 명이나 보냈을까요?

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점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돌지니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2 절).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크고 견고한 여리고 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넘겨주셨을 때에는(6:2) 옛새 동안 그저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바퀴씩 돌다가 일곱째 날에 일곱 바퀴를 돌고 나팔을 불고 소리를 치라”고 말씀하셨었는데(3-5 절),

여리고 성보다 훨씬 작은 아이 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넘겨주시려고 하셨을 때에는(8:1, 18) “복병”까지 아이 성 뒤에 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2 절).

우리의 명철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이성으로 이해해서 순종하기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믿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해야 한다는 교훈을 받습니다

(참고: 잠 5:6-7).

하나님의 모든 길은 순종하는 자에게는 ...

하나님의 모든 길,
심지어 옴처럼 내 명철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고통의 길이라 할지라도
내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시기에
내 발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걸어갈 때에
그 하나님의 모든 길에 포함된 나의 고통의 길도
나에게는 인자와 진리입니다
(신 5:32; 수 23:6; 욘 23:10-12; 시 25:10).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사랑하시고(미리 아시고)
예정하신(미리 정하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롬 8:28, 29).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는 마음

하나님의 부흥(revival)을 경험하는 마음에는
찬양(praise)과 평안(peace)이 있습니다(사 57:19).
그러나 찬양과 평안이 없는 마음은 교만한 마음이요
죄를 범하고 있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승리!

하나님께서서는 아이 성을 점령함에 있어서 여호수아에게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네 손에 넘겨 주었"다(수 8:1),
"내가 이 성읍을 네 손에 넘겨주리라"(18 절)고 말씀하셨고
여호수아는 그의 용사들에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7 절)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에 있어서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승리의 확신 성경구절입니다:
"여러분이 당한 시험은 모든 사람들이 다 당하는 시험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므로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당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이 시험을 당할 때에 피할 길을 마련해 주셔서
감당할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고전 10:13, 현대인의 성경).

하나님의 언약을 보이십니다.

하나님께서서는 하나님의 친밀하심이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보이십니다(시 25:14).

하나님의 원수에게 조롱 및 비방거리가 되게 하지 말아야 할 텐데 ...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출 32:25).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고 그녀의 남편인 우리아를 죽이므로

"여호와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했습니다(삼하 12:14).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게 된다면?

만일 우리가 마음이 완악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게 된다면 ...?

(수 11:20)

하나님의 일하심이 흥미롭습니다. (1)

기드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미 받았을 뿐만 아니라(삿 6:12-16),
자기가 하나님께 구한 표징도 보았습니다(17-21 절).
또한 그는 하나님을 양털로 두 번이나 시험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이 요구한 대로 두 번이나 그대로 행하셨습니다(36-40 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7:9-10).
이미 하나님께서 그에게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네 손에 넘겨주었느니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말입니다(9 절).
아마도 그 이유는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았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12 절).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었던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는 "네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10-11 절).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으로 하여금 미디안 진영에서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는 이야기와
그 꿈을 들은 "그의 친구"의 말을 듣게 하셨는데
"그의 친구"의 말은
"...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였습니다(13-14 절).
그런데 이 이방인 사람이 한 말은 이미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9 절).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라고 말한(6:13) 기드온에게
"내가 그것(미디안)을 네 손에 넘겨주었느니라"(7:9)고 직접 말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미디안 진영에서 적군의 입을 통해서도 기드온에게
"...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기드온)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는
말을 듣게 하신 것입니다(14 절).

하나님의 일하심이 흥미롭지 않나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흥미롭습니다. (2)

하나님께서 요셉이 죄를 범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애굽 왕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39:1)의 아내에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도록 허락하셨는데(7-20 절),
하나님께서 "그 후에" 바로 왕에게 범죄한 그의 술 말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을(40:1) 바로 왕의 분노 가운데 요셉이 갇혀있었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갇히게 하셨습니다(2-3 절).
그러신 후 하나님께서는 옥에 갇혀있었던 두 관원장으로 하여금 꿈을 꾸게 하시고
요셉으로 하여금 그 두 사람의 꿈을 해석케 하시사(5-13 절)
결국에는 술 말은 관원장을 통하여 꿈을 곧 바로 왕에게 소개되어(41:9-13)
마침내 바로 왕의 꿈도 해석케 하시므로(25-36 절)
바로 왕을 통해 요셉을 건져내셨습니다(14 절).

하나님의 임재의 목적?

하나님께서
거룩한 계명(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심은
우리를 시험하시고
우리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출 20:20)

하나님의 입장에서서는 …

솔로몬 왕은 기브온에 가서 큰 산당 그 제단에서 일천 번제를 드렸었지만(왕상 3:4)
그가 나이가 많을 때에는 그의 일천 명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므로(11:3-4)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이 생각납니다(삼상 15:22).

우리가 하나님께서 1,000 번의 예배를 드릴 때에
사단은 그의 1,000 명의 종들로 하여금 우리를 미혹합니다.

우리 입장에서서는 하나님께 1,000 번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1 번째 명령을 순종하는 것을 더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집을 도둑의 소굴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하면서 세상에 나가서 "이 모든 가증한 일",
곧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우상을 숭배하며 따르는 교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하나님의 집을
"도둑의 소굴"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렘 7:9-11).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수중에 있으며,
주님의 발아래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신 33:1, 3).

하나님의 크신 은총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악과 죄를 행하는 목이 뿔뿔하고 곧은 우리와 친히 동행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아닐 수 없습니다(출 33:3, 12-16; 34:9).

하나님의 허락과 불허락?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 당함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고전 10:13).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불신자들이
우리를 보고 이렇게 말하고 있나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습니다'
(창 26:28; 39:3).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통하여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사
모든 사람들이 내가 주님의 종으로 세우심을 받은 것을
알게 해주시길 기원합니다(삼상 3:19-20).

학대하는 자를 선대한다?

나를 학대하는 내 원수를 선대하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으로 갚으시는 것을
경험해야 하지 않나요? (삼상 23:17, 19)

한 가지만 해도

주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려고
"마음이 분주"하면서 염려하고 근심하기보다
주님 보시기에 "이 좋은 편을 택하"여
"한 가지만"해도 족해야 합니다
(눅 10:38 42).

한 분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셨습니다.

한 사람 "모르드개"는 아하수에로 왕이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으므로 하만을 매우 노하게 했습니다(에스더 4:1-5).
그 결과 하만은 모르드개 뿐만 아니라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모르드개의 민족인 유다인을 다 멸하고자 했습니다(6 절).
[여기서 잘 이해가 안되는 점은 왜 모르드개는 에스더에게 명령하여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말라고 해놓고(2:10, 20)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는가 입니다(3:4).]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죽으면 죽으리이다"라고 결심한 한 사람 "에스더"(4:16)를 통해
모르드개 뿐만 아니라 유다인을 그 멸망의 위기에서 건지셨습니다(8-9 장).
[여기서 저는 "죽으면 죽으리이다"라고 결심한 한 사람 에스더를 생각할 때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롬 5:17)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빌 2:8)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아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된 사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롬 5:18).]

"한 뼉 길이만큼" 밖에 안되는 인생인데 ...

"한 뼉 길이만큼" 밖에 안 되는 인생(시 39:5),
주님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도(요일 3:23)
짧은 인생이건만 ...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로움을 당했습니다(수 7:1, 25).
나 한 사람의 회개치 않은 범죄로 인해
온 공동체(가족 및 교회 등)가 괴로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습니다(롬 5:12).
나는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 영적으로 죽었던 자입니다(엡 2:1, 현대인의 성경).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생이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습니다(롬 5:15, 21; 6:23).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인해
나는 죄 사함과 의롭다하심을 받아(4:25)
영원한 생명이 넘칩니다.

'한 사람이 천 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싸우심으로
그들 중 한 사람이 천 명을 쫓았던 것처럼(수 23:10),
주님께서 나에게 오병이어의 말씀을 주신 것 같이(요 6:1-15)
비록 나는 남자만 5,000 명 앞에서
물고기 2 마리와 떡 5 덩어리 밖에 안 되는 존재이지만
주님께서는 나를 통하여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시사
1,000 명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해주시길 기원합니다.

항상 소망을 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항상 소망을 품고
주님을 더욱 찬송하는 자들입니다(시 71:14).

"행복한 사람"

우리 같이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사람이 없기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신 33:29).

행함이 없는 믿음, 행함이 없는 사랑?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요
거짓된 믿음인 것처럼
(약 2:14, 17, 20, 26),
행함이 없는 사랑은
죽은 사랑이요
거짓된 사랑입니다
(요일 3:18).

현재의 고난을 ...

"현재의 고난"을
족히 비교할 수 없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견디게 하옵소서
(롬 8:18; 골 1:11).

혹시 지금 당신은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의 일을 미리 염려하며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혹시 지금 당신은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의 일을
미리 염려하며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혹시 지금 당신은 그 미래의 일을 닥치면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하면서 두려워하고 있습니까?(신 7:17)

성경은 그 미래의 일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18 절).
성경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18 절).
어떻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금까지 인도해주셨는지,
어떻게 당신은 역경과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에서
건져주셨는지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19 절).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당신이 지금 두려워하는 모든 미래의 일도
과거와 똑같이 건져주시고 인도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19 절, 현대인의 성경).
"여러분은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분은 위대하고 두려운 하나님이십니다"(21 절, 현대인의 성경).

혼동, 망각, 무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지극히 작게 여기는 교만한 마음은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를 혼동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과 인도하심의 목적을 망각하고 또한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죄의 결과도 모르고 있습니다(민 16:13).

흥미하게 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 받기를 싫어하여 받지 아니하고
우리 마음이 꾸지람을 가볍게 여기면 우리는 심히 미련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심히 미련한 우리는 흥미하게 되어 큰 악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잠 5:12, 14, 23).

홍해와 요단 물을 마르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서는 밤새도록 강한 동풍을 불게 하셔서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셨으므로
홍해 바다가 갈라져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출 14:21, 현대인의 성경).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좌우 물 벽 사이로 마른 땅을 밟고 바다를 건너갔고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갔다가
다 전멸 당했습니다(22-28 절, 현대인의 성경).

그 결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31 절).

하나님께서서는 요단 물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마르게 하사
그들로 하여금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신 것과 같았습니다(수 4:23, 현대인의 성경).
그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현대인의 성경)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은
세상에 사는 모든 민족에게 여호와의 위대하신 능력을 깨닫게 하고
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히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란다”](24 절).

"화목하고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써야 하는데 ... ㅠ

"음식 문제"이든 어떠한 문제든 아무리 다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거나,

꺼림칙하게 하는 것이나, 죄 짓게 한다면

그것은 나쁜 것인데 ...

삼가했어야 했는데 ...

(롬 14:19-21, 현대인의 성경)

"이런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대로 하십시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할 때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의심을 하면서 음식을 먹는다면

그것은 믿음으로 먹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죄가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모두 죄입니다"

(22-23 절, 현대인의 성경).

1000 마리 , 3000 마리 번제

솔로몬 왕이

1000 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는데

(대하 1:3-6)

그의 아버지 다윗 왕은

3000 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네요

(대상 29:21).

No 차별, But 분별

우리는 "차별"해서는 아니 됩니다

(롬 10:12, 골 3:11).

그러나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는 거룩하고 속된 것,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해야 합니다(레 10:10).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분별력을 가지고

이 세상과 "분리"된(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롬 12:2).